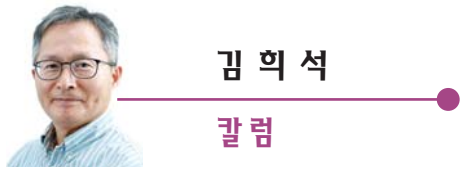


스크린의 귀환, 히말라야의 기다림



김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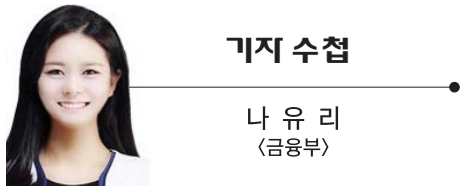
칼럼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완성이다. 한산했던 극장가가 모처럼 관객들로 북적였다. 올여름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영화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를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개봉 한 달 만에 국내 관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2800년 전 이야기가 인공지능과 우주시대의 관객까지 사로잡은 셈이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졌지만 귀향에도 다시 10년이 걸렸다. 바다의 분노와 괴물의 위협, 유혹과 배신을 견뎌낸 끝에 그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긴 이야기가 귀환에 할애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원정의 목적은 멀리 떠나는 데 있지 않다. 무사히 돌아와 기다리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여정은 완성된다. 오디세우스에게 바다는 모험의 무대였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부하에게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같은 항해도

귀환한 사람에게는 모험담이 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된다. 비슷한 시기, 히말라야에서는 영화보다 참혹한 현실의 재난이 벌어졌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고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물과 토사가 계곡을 덮쳤다. 마을과 도로, 교량이 사라졌고 여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었다. 네팔은 지금도 수많은 실종자를 찾고 있다. 재난의 정확한 발생 과정은 조사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빠르게 따뜻해지는 히말라야의 기후에 주목한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약해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산비탈과 암반의 안정성도 낮아진다. 네팔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차지하는 몫이 미미하지만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불공정성이 히말라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기후변화에에만 돌릴 수도 없다. 전력과 도로, 일자리가 필요한 네팔에 수력발전은 중요한 성장 기반이다. 문제는 개발 여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개발하느냐에 있다. 기후변화로 과거의 안전기준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위험지도와 설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과

정에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이번 재난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도 끊겼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인력들이다. 정부가 신속대응팀과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네팔 당국 및 여러 나라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이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고난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의 방랑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가 기억하는 모험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영웅의 귀환으로 기록된 항해가 다른 누군가와 그 가족에게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으로 남았다. 우리가 ‘오디세이’의 화려한 모험 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지금 히말라야에서도 실종자들의 가족과 동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나 모험담이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익숙한 얼굴과 “다녀왔습니다”라는 평범한 한마디다.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도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가족과 동료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유튜버상 vbkim11@metroseoul.co.kr

‘영끌’의 책임은 오롯이 차주 몫인가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말 1조원이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올해 6월 말 2조200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20.9%에 그쳤다. 대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연체가 훨씬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이 같은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영끌족’이다.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낸 선택에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금리와 집값이 언제까지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

킨 판단 역시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오롯이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적극 취급했다. 상대적으로 담보가 확실한 주택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이었다. 대출 수요가 커지는 동안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도 함께 불어났다. 정책당국 역시 가계부채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했다. 주택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차주가 빚을 내 주택시장에 진입했다. 당시에는 대출이 손쉽게 공급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차주와 금융회사 모두 위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상환 부담이 커지자 책임의 초점은 빠르게 개인에게 옮겨갔다.

최근에는 장기 연체와 고정이하여신도 함께 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차주의 일시적인 상환 지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차주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 위축,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영끌족의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아니라 왜 이런 부채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공급했던 주체로서 취약 차주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정책당국 역시 가계부채가 다시 특정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영끌의 대가는 지금 차주가 치르고 있다. 그러나 영끌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까지 차주 혼자 만든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의 책임을 논하려면 차주의 선택뿐 아니라 금융권과 정책당국의 역할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yu115@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9일 (음 7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경쟁 자가 너무 많습니다. 60년생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세요. 72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84년생 얼마 전 다툰 사람이 용기내어 사과를 요청합니다. 용서하세요.



49년생 높은 집에 옷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61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85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50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62년생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74년생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86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51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줍니다. 63년생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75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7년생 기회는 많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52년생 예상을 빚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64년생 새롭게 시작함이 좋습니다. 76년생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邁進하세요. 88년생 희망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53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이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5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77년생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89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55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6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7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91년생 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56년생 무엇보다 건강을 다스릴 때입니다. 6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게 탈입니다. 80년생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9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게 됩니다.



57년생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69년생 회사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81년생 어둠을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픈 하루입니다. 93년생 근신할 때입니다. 매사 주의 하세요.



58년생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70년생 업무를 할 때에는 주위와 협동하세요. 82년생 무작정 발인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94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어렵겠습니다.



59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71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83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95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최선의 선택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 이야기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아문센과 스콧의 남극 탐험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생의 험난한 여정이 미지의 남극 탐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더욱 그렇다. 관심을 두고 살펴보니 아문센과 스콧은 결국 최선 또는 최적의 선택에 관한 판단이 달랐다. 우선 남극이라는 혹독한 기후 여건과 빙산을 비롯한 빙하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식 등에 차이가 있었고, 혹여 발생한 여러 종류의 리스크에 대한 가정과 준비에 있어 대응방안이 달랐다. 즉,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에 차이가 달랐던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과를 낳았다. 우선, 아문센은 이동수단으로서 개 썰매를 활용하기로 했기에 개들은 철저히 훈련받았고 개 썰매를 모는 요령도 철저히 훈련하였다.

아문센은 탐험에 앞서 이누이트족에게서 개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개를 잘 다루는 아들, 즉 기술자들을 최종 팀원으로 넣을 만큼 개 썰매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콧은 개 썰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누이트족이었기 때문에 아문센들의 문화라고 생각하여 멸시했다. 그래서 스콧은 대영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설상차와 야쿠트 조랑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는 스콧의 치명적인 실책 중 하나가 됐다. 조랑말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했고, 설상차는 당대의 과학적인 기술이었다곤 해도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이었다. 굳이 미지 탐험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다. 인생 여정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장애가 계속되고 뜻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잠깐 멈춤을 해야 한다. 그 해안의 힘은 겸손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결합형 스도쿠110

종교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7	6	1	2	8	9	9
2	8	9	8	2	9	6	1	7
1	9	6	7	9	8	8	2	2
9	2	2	1	8	6	9	7	8
8	7	8	9	9	2	1	2	6
9	6	1	2	8	7	9	8	2
8	1	8	7	9	2	6	9	9
6	2	9	8	2	8	7	9	1
7	9	2	9	6	1	2	8	8

9	8	7	8	6	9	1	2	2
6	1	2	9	2	8	7	9	8
8	9	2	7	1	2	9	6	8
1	8	8	9	9	9	6	2	2
2	7	6	2	8	1	8	9	9
9	2	9	2	8	6	8	7	1
7	9	1	8	9	2	2	8	6
2	6	9	1	7	8	2	8	9
8	2	8	6	2	9	9	1	7